

『한국수산지』의 해도와 일본 해군 수로부의 해도 - 경상도 동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

서경순

I. 서론

『한국수산지』는 1908년부터 1911년에 걸쳐서 편찬 간행된 문헌이다. 전체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집은 한국¹⁾의 지리 및 수산에 관한 총론에 해당하며, 제2집~4집은 당시 한국의 행정구역에 따라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로 각각 구분하여, 각도별의 하층 항목에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권의 권두에 조선 해수산조합을 비롯한 주요 정박지, 주요어장, 어전(어살), 어로 광경, 어시장(어물전), 등대, 등간, 쾌등입표, 염전 등의 사진을 배치하여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의 주요 어장 및 수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한국수산지』 제1집을 간행한 시점에 부속 자료로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²⁾라는 대형지도를 간행하였다. 이 지도에는 내

-
- 1) 20세기 초에는 한국과 조선을 병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한국으로 통일한다.
 - 2)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1908년 12월)는 15장을 조합한 지도이다. 지도의 상단에 “① 한국 연안 지형·수심·底質 등은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朝鮮全沿岸圖에 근거, ② 우편·전신·전화선로는 1908년 통감부 통신관리국에서 간행한 통신선로에 근거, ③ 등대·세관 등 기타의 관공서는 각 관청이 간행한 보고서에 근거, ④ 水溫 등은 인천 관측소 소장

륙부에는 주요 도시명, 산의 등고선, 철도 등의 교통망과 우체국, 읍소재지 등의 다양한 기호가, 해안부에는 각 도별 연안에 항로, 수심 등과 일본어로 된 어획물의 명칭 등이 표기되어 있다. 이 1장의 대형 지도는 낯선 한국으로 출어하는 일본어부들에게 핵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수산지』의 제2권~제4권에도 수심 장의 해도가 삽입되어 있다. 해도 중에는 일련번호가 기록된 것이 다수 발견된다. 당시 해도는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하였으므로 일련번호는 해군 해도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해도를 일본 해군의 해도와 비교해 보면 세부 내용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해도는 해군 해도에서 보여주는 많은 정보가 삭제되어 빈 공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수산지』는 일반 어업자들을 대상으로 편찬하였다. 여기에 삽입된 해도가 당시 어업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수산적인 측면 외에도 군사적인 측면, 즉 양면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근대 일본의 해도 제작 배경과 해도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근대 해도의 발상지인 유럽의 해도 제작배경과 역할 그리고 유럽의 해도가 일본에 전래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한국수산조사의 결과물인 『한국수산지』를 통하여 당시 한국 연안에 출어한 일본 어부의 수산상황 및 이주어촌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다.

이글에서는 『한국수산지』의 4권 가운데 제2집에서 경상도 동해지역으로 축소하여, 특히 해도가 삽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和田雄次の 보고서에 의거, ⑤ 수산물 분포도는 각 조사원 보고에 의하여 편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두었다. 연안 주변에 수산물 명칭을 일본어(히라가나)로 기록한 것은 각 지역 수산물 생산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함경도 연안에 명태 성어지, 경상도 연안에 정어리(멸치) 성어지, 제주도 연안에 전복·해삼 성어지, 전라도의 서해 연안에 조기 성어지, 황해도 연안에 새우 성어지는 매우 굵고 진하게 기록하여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눈에 한국의 주요수산물 생산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日本國立國會圖書館).

II. 근대 해도의 성립

1. 근대 유럽의 해도

오늘날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지도의 근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2세기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도를 제작하면서 본초자오선 및 경위선 개념을 도입하여, 둥근 지구의 형태로 그리기 위해 원추투영도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발상은 프톨레마이오스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가 활동하던 알렉산드리아³⁾에는 당대 최고의 문헌과 최고 지식인들의 선구적인 사례들이 집약되어 있었던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부감적인 세계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도방위를 북쪽을 위로 설정하였는데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이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를 세계지도의 출발이라고 평가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는 천년이 훨씬 넘도록 표준지도로 군림하였지만 운명은 순조롭지 않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부활하기를 수차례나 거듭하면서 약 1400년 동안에 걸쳐 명맥을 이어왔다. 더욱이 15세기 말~16세기 초, 항해 탐험에 나선 초기의 항해가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를 맹신하는 바람에 항해에 큰 오류를 초래하였다.

대항해시대는 유럽의 중세를 마감하는 근대의 출발점이다. 대항해시대의 선두국가는 포르투갈이며, 발판을 마련한 인물은 포르투갈의 왕자 엔히크(엔리케)이다.

1416년 엔히크는 포르투갈의 서남 끝에 위치한 사그레스에서 왕자의 마을을 건설하고 항해술과 해도제작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조

3)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붙여 조성한 계획도시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사후에 그의 계승자 중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에 왕조를 창건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았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다. 이곳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있었으며, 고대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다.

4) 미야자키 마사카츠 저, 이근우 역(2017), 『해도의 세계사』, 어문학사, 41~45쪽



<그림 1> 피사지도(현존하는 最古의 포르투라노, 14세기)
* 출처: 『해도의세계사』(2017), 85쪽

선소, 천문관측소 등을 설립한 후에 해도 장인을 비롯한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을 초빙하여 체계적인 항해 탐험사업을 착수하였다.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바다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엔히크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워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점차 바꾸어갔다. 40년 이상 항해 탐험사업에 매진한 결과 아프리카 서안의 해상 도로가 개척되었다. 이것은 엔히크의 강한 집념에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항로 개척과 동시에 해도가 제작되었다. 당시 해도는 나침반을 사용하는 포르투라노라는 해도이며 실제 항해 탐험에 의하여 제작된 실무적인 근대 해도였다.⁵⁾

엔히크왕자에 의해 아프리카 서안 항로가 개척된 후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로톨로메우 디아스는 최초 실제 항해에 나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교차하는 지점인 희망봉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⁶⁾ 희망봉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후추의 본고장인 인도로 갈 수 있다는 희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유럽의 대항해시대의 신호탄이 되었다. 바스코 다 가마, 콜럼버스, 캐벗, 마젤란

5) 앞의 책, 82~85쪽, 103~108쪽(포르투라노 해도는 실제 항해에 의해 해안선, 항정선, 알은 바다와 암초의 위치, 항만의 상황, 항구 간의 방향 등 항해 안전을 위하여 항해자가 항해 현장에서 완성한 실무해도이다. 휴대하기 편하도록 양피지 또는 독피지(송아지가죽)에 수작업으로 제작하였다).

6) 앞의 책, 109~111쪽.

등 항해가들의 연이은 항해탐험으로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의 바닷길이 점차 개척되었다. 그리고 해도 또한 세계지도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초기의 항해가들은 16세기 초까지도 2세기에 제작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를 표준지도로 삼았다. 이것은 대항해시대가 시작된 그 시점에도 유럽인의 세계관 속에는 바다에 대한 경외심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는 2세기에 그려진 만큼 당연히 많은 오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를 맹신한 콜럼버스는 1492년 서인도로 가는 지름길 개척에 나서 유럽의 서쪽 바다 즉 대서양으로 항해하여 미지의 대륙에 도달하였다. 콜럼버스는 이 대륙을 서인도라고 유럽세계에 전하였으며, 자신이 사망하는 날까지 서인도라고 굳게 믿었다.⁷⁾ 서인도는 지금의 남북아메리카대륙을 말한다. 당시 유럽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륙은 오직 3대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콜럼버스의 주장대로 아메리카대륙을 서인도로 인식하였고, 그곳의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마젤란 또한 콜럼버스와 마찬가지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를 맹신한 항해가였다.⁸⁾ 그 결과 광활한 태평양의 존재를 유럽인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지구를 한 바퀴 돈 최초의 인물로 평가된 마젤란의 항해는 세계의 바다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목숨을 담보로 했던 초기 항해 탐험가들의 항해성과는 해도에 잘 반영되어있다.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과 그 뒤를 이은 스페인 양국은 항해가의 항해탐험 결과물인 해도를 극비로 엄중하게 다루어 항로를 독점하였다. 그러나 독점 항로는 영원하지 못했다. 항로 개척은 곧 해상무역과 연관선상에 있었으므로 바닷길 공유권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609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⁹⁾는 그의 저서 『자유해론』에서 “모든

7) 앞의 책, 140~146쪽, 161~164쪽.

8) 앞의 책, 206~208쪽.

9)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 법률가·행정관·외교관. 근대 자연법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법의 기초를 체계화하였다. 국제법에 관한 그로티우스의 저서에는 『포획법론』(De jure praedae, 1604~1605 집필), 『자유해론』(Mare liberum, 1609),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국가는 해상무역을 위하여 국제 영역인 바다는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는 항해권을 주장하는 한편 수로지를 비롯한 해도 공유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네덜란드 및 영국 등 신흥국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항로가 개척되었다.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향후 국제해양법의 초석이 되었다.

더욱이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 지방에 동판 인쇄술을 보유한 대형인쇄소가 설립되어 다양한 해도가 다량 인쇄되어 항해가들이 손쉽게 해도를 입수할 수 있었다.¹⁰⁾

17세기 후반에는 과학의 발달로 측량도구 및 측량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도 또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최초 과학적인 측량을 시도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1666년 과학아카데미¹¹⁾를 설립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정한 것은 ‘정확한 지구둘레계산’이었다. 천문학자 장 피카르를 책임연구원으로 임명하였다. 피카르는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니스를 칠한 가늘고 긴 나무막대기¹²⁾를 이용하였으며, 더욱이 삼각측량을 시도하여 경도 1도의 수치를 110.46km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수치로 지구 반경을 계산하면 6,372km이며, 실제의 지구 반경인 6,375km와 매우 근사한 수치이다. 장 피카르를 계승한 인물은 카시니이다. 카시니는 제노바 출신인데 프랑스의 파리천문대장직으로 초빙되어 와서 프랑스에 귀화하였다. 그는 아들과 함께 파리 자오선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지구가 타원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욱이 카시니 일가는 4대에 걸쳐서 프랑스의 측량사업에 종사하여 1815년에 삼각측량 방식으로 세계 최초의 국가지형도(카시니 지도)를 완성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사용하는 미터법은 1919년 국제수로회에서 프랑스의 미터

Pacis, 1625) 등이 있다. 1609년에 출판된 『자유해론』은 초판이 80페이지도 되지 않는 소책자였지만 당시 포르투갈이 인도 통상을 독점하면서 네덜란드의 참여를 적극 방해한 것에서 통상과 항해는 전 인류의 해양자유 원칙을 주장했던 유명한 문헌이다.

10) 앞의 책, 228~231쪽(1549년 프랑스인 크리스토프 플랜턴(1520~1589)이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 지방에 이주하여 대형 인쇄소를 설립한 후 34년간 운영하였다. 당시 플랑드르 지방의 최대 인쇄소였다.

11) 17세기 프랑스 정치가 장 밥티스트 콜버트의 제안에 의해 루이 14세가 1666년 설립한 프랑스의 과학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17~18세기 유럽의 과학 발전을 선도한 최초의 세계과학기관이다.

12) 나무는 특성상, 기후변화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나무에 니스 칠을 하여 길이 변화에 대처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을 채용한 것이다. 카시니 일가의 4대에 걸친 측량 업적을 세계가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³⁾

18세기 유럽 각국에서 수로부를 설치하였다. 최초 설치한 국가는 역시 프랑스(1720)이다. 이어서 덴마크(1784), 영국(1795), 스페인(1800) 등에서 설치하였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육군에 수로부를 두었는데 영국은 해군에 설치하였다.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군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다.

영국 해군 수로부는 수로부장을 별도로 채용하였고, 측량선을 구비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해군을 선발하여 실제 측량에 나섰다. 처음에는 열악한 측량 도구와 측량 기술의 부진 등으로 측량 오류를 반복하는 한편 해군의 사망 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수로부는 측량 사업을 멈추지 않고 반복 실시하여 측량오류를 거듭 수정하여 정밀한 측량 메뉴얼로서 측량법을 표준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국 해군 수로부의 해도는 다른 국가의 해도와 차별화할 수 있었다. 19세기 중엽에는 아프리카, 인도, 아메리카대륙, 동아시아로 진출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해도를 제작해서 다량 발행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보급하였다. 정확도가 뛰어난 영국 해도는 당시 각국의 선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보급되었는데, 1862년에는 75,000매의 해도가 판매되었을 정도였다.¹⁴⁾

세계 각국의 현재 시간을 비교하면 각국마다 시차가 있다. 이것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본초자오선으로 기준하여 시간을 정했기 때문이다. 1884년 10월 제1회 국제자오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참가국은 25개국인데 프랑스를 제외한 24개국에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본초자오선으로 규정하는 데 찬성하여 이날부터 그리니치

13) 남영우(1999),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작성과정」,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77쪽; 정인철(2006), 「카시니 지도의 지도학적 특성과 의의」, 『대한지리학회지』 41-4, 375~378쪽; 앞의 책(『해도의 세계사』), 276~277쪽.

14) 앞의 책(『해도의 세계사』), 295~303쪽(빅토리아 여왕(재위1837~1901)시대를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하며 모든 해상 도로를 영국으로 통한다고 할 정도였다).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시간이 정해졌다. 이 결정에는 당시 항해 선박의 60~70% 이상이 영국에서 건조한 선박이었던 것이 크게 좌우한 것이 아닐까.¹⁵⁾ 덧붙여서 영국 해도의 우수성 또한 그 영향력을 좌우했던 것은 아닐까?

본초자오선의 결정은 해도의 표준화를 가져왔다. 또한 19세기 유럽 각국의 해도 공유는 국제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었다. 산업 발달은 내륙의 변화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큰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종래 바람에만 의존하던 범선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증기선으로 교체되어 갔다. 그러나 신식 증기선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동반되었는데 연료보급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미 각국에서는 앞을 다투어 무인도 및 무주지 선점 경쟁에 나섰다. 이 경쟁에서 구미 각국은 국제질서를 지켜야 했다. 당시 구미세계에서 통용되었던 국제법에 의하여 구미 열강국들은 약소국에 대한 선점 논지를 정당화시켰다.

당시 무주지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토 또는 주권을 포기한 영토를 의미한다. 구미의 열강국은 문명국, 반문명국(반개국), 비문명국(미개국)이란 논리를 세워서 기독교를 믿는 구미를 문명국으로 설정한 후 비기독교 국가인 약소국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개국 즉 무주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문명국에 대한 문명개화라는 미명하에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이 논리는 약소국의 식민지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편이 되었다. 유럽 각국에서 실제 측량을 하여 제작한 해도에 제작 국가명과 간행 일자를 기록한 것은 차후 선점 주장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근대의 해도는 구미 각국의 식민지 구축사업에 일익을 하였다.

2. 근대 일본의 해도

일본은 언제부터 근대적인 해도를 제작하였을까? 그 성립과정을 추적해 보도록 하자.

15) 앞의 책(『해도의 세계사』), 304~306쪽.

에도 말경, 일본 연안에 유럽 열강의 군함들이 빈번하게 출몰하였다. 1845년 나가사키 연안일대에서 영국 군함 사마랑호(サラマング號)가, 1849년에는 에도만과 시모다항에서 마리나호(マリナー號)가, 1855년에는 대마도 해협을 비롯한 규슈 지역 일대에서 사라센호(サラセン號) 등이 무단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강력한 무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¹⁶⁾ 구미 각국에서 남의 나라 연안에 출몰하여 실측한 후 해도를 제작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구미의 국제질서와 관계가 있다. 구미의 국제법은 1864년 중국에서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868년에 일본어 번역서가 나왔다.¹⁷⁾

에도막부는 구미열강의 무단 실측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군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선 군함을 수입하고, 1855년 나가사키해군전습소(長崎海軍傳習所)

16) 小林 茂(2011), 外邦図 帝国日本のアジア地図, 中央公論新社, 30쪽

17) 조세현, 2018년 12월 4일자 21면 해양문화의 명장면<42> 만국공법과 근대 동북아 해양 분쟁.; 김용구(2008),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57~68쪽, 93~124쪽(『만국공법』(1864)은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마틴(W.A.P.Martin)이 중국주재 미국공사 벌링게임의 의뢰로 휘튼(H.Wheaton)의 저서 『국제법 원리』(1836)를 한역한 서적인데, 이 서적은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구미의 국제법을 소개한 최초의 서적이다. 『만국공법』은 중국에서 출간된 다음, 일본에 전해졌는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과 함께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중국보다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편 메이지유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 『만국공법』을 적용시킨 사례로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이로하마루의 해양 분쟁사건을 들 수 있다. 1867년 4월 사카모토 료마는 오오즈번(大洲藩)에서 160톤급 증기선 이로하마루(伊呂波丸)를 빌려 무기와 탄약을 싣고 나가사키에서 오사카로 향해하던 중에 기슈번(紀州藩)의 887톤급 증기선 아카미스마루(明光丸)와 충돌하여 침몰하였다. 양측에서 이로하마루에 대한 손실 배상을 놓고 여러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별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료마가 아카미스마루의 항해일지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충돌 당시에 아카미스마루에는 파수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료마는 항해 시에 파수꾼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규인데 두지 않았으므로 『만국공법』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기슈번으로부터 배상금 8만3000냥을 지불받을 수 있었다. 『만국공법』이 한국에는 언제 전해졌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조선)은 만국공법을 알지 못하여 공법이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야기한 한 사례가 있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중국으로 가는 해로를 측량한다는 명분으로 조선 연해에서 무단 측량하던 중 강화도에서 조선수군과의 교전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중국의 이홍장은 『만국공법』의 3해리 영해규정을 적용시키면 일본이 조선의 영토에 불법 침범한 것이므로 조선 수군이 선제 발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공사는 조선은 구미 측과의 조약을 체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만국공법』을 적용시키면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조선의 중주국인 중국이 나서서 일본과 담판하였지만 결국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림 2> 동양제국 항해도(동경국립박물관 소장, 17세기)

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해군 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교관을 초빙하여 유럽의 항해술, 조선학, 측량학, 선구학, 기관학, 포술(砲術) 등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아키우라수선공장(飽浦修船工場), 나카사키제철소(長崎製鐵所)¹⁸⁾를 병설하였다. 해군전습소의 제1기생 중에 야나기 나라요시(柳橋悅)¹⁹⁾ 및 오노 토모고로(小野友五郎)²⁰⁾는 근대 일본의 측량술, 항해술, 해도 제작술을 이끌었던 선구자들이다. 특히 야나기는 1870년 해군으로 출사하여 일본 연안 곳곳을 측량하는 등 근대 해도 제작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일본 수로측량의 아버지’로 불린다.²¹⁾

1868년 메이지정부의 핵심 수뇌부들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구미의 선

18) 아키우라수선공장(飽浦修船工場)과 나카사키제철소(長崎製鐵所)는 나가사키조선소(長崎造船所)의 전신이다.

19) 柳橋悅(1832.10.8.~1891.1.15), 수학자, 측량학자, 정치가 해군(海軍少將), 대일본수산회 간사장, 元老院議官, 貴族院議員 역임, 1853년 伊勢灣沿岸 측량, 1855년 나가사키해군전습소에 파견되어 항해술과 측량술을 습득, 1870년 해군에 출사, 영국 해군과 공동으로 해양측량 경험을 쌓았다. 당시 일본에서 해양측량의 제일인자로 측량체제를 정비, 통솔하여 일본 각지의 연안, 항만을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하였다,

20) 小野友五郎(1817.12.1.~1898.10.29), 수학자, 해군, 재무관료 역임, 1855년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나가사키해군전습소에 들어가 16개월간 천측 및 측량술을 익혔다. 츠키치군함조련소(築地軍艦操練所)를 신설할 때 교수방(教授方)이 되었다, 1861년에는 군함행장으로 에도만을 측량하였고, 이어서 威臨丸에 승선하여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경위도를 측정하였다, 1861년에는 威臨丸 함장으로서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측량임무를 완수하였다. 이것은 이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영유권에 큰 단서가 되었다;

21) 矢吹哲一郎(2020), 「日本による近代海図刊行の歴史(明治5~18年)」, 『海洋情報部研究報告』, 第 58 号, 11~12쪽.

진제도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일본의 폐리다임 전환기였다.

일본에서 근대적 측량법에 근거하여 지도제작을 시도한 것은 육지측량부의 지형도 및 수로부의 해도 그리고 민간지도 및 학습교재용 지도첩 등이 있다.²²⁾ 내륙지도는 1869년에 민부성 호적지도과(戶籍地圖課)에서 지도제작을 시도하였으며, 1875년에는 내무성에서 유럽의 삼각측량법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1877년에는 일본 전역 지적도를 완성하였다²³⁾.

근대 해도 제작은 1869년(明治 2) 군사개편에 의해 병부성(兵部省)²⁴⁾이 설치되어 나가사키해군전습소 1기생이었던 야나기 나라요시가 병부성의 어용계(御用掛)²⁵⁾로 임명되어 수로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측량도구도 미비하였지만 측량기술 또한 부족했던 탓에 야나기는 1870년 일본 제일정묘함(第一丁卯艦)²⁶⁾에 직접 승선하여 영국 측량함 실비아호(HMS Sylvia)에 협력하여 일본 연안 측량사업을 착수하였다. 야나기는 실비아호의 지도와 도움으로 실제 측량에 종사하며 측량기술 및 해도 제작술을 익혔다.

1871년 병부성은 군사 개편을 하여 육군과 해군을 분리하였다. 같은 해 해군에 수로국(水路局)을 설치하고 야나기를 수로권두(水路權頭)로 임명하였다. 당시 야나기의 계급은 해군 소좌였다. 수로국의 주요 업무는 수로측량, 부표(浮標)와 입표(立標) 그리고 등대 설치 등인데 이외에 외방도(外邦圖)라는 외국 지도를 기밀(機密)로 제작하였다.²⁷⁾ 일본 해군은 외방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실제 측량에 나섰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22) 船杉力修(2017), 「分縣地圖の草分け『大日本管轄分地圖』について(1)」, 『湓雲』 19, 4 쪽.

23) 앞의 논문(남영우), 78쪽

24) 明治初期 軍令・軍政機関, 1869年(明治2) 6省중 하나로 設置된 陸海軍의 군비 등을 관장

25) 明治시대에 宮内省 및 기타 관청의 명령을 받고 용무를 담당한 사람의 직책

26) 長州藩에서 영국 로이든社에 발주한 목조기선이다. 丁卯란 1867년을 의미하며, 第一丁卯와 第二丁卯가 동시에 건조되었다. 長州藩이 명치 3년(1870년)에 정묘함을 메이지 정부에 헌납하여 병부성 소관이 되었으며, 제일정묘는 「제일정묘함」으로 개명되어 명치 6년(1873년)까지 측량임무를 하였다.

27) 앞의 책(小林 茂), 33~34쪽.; (외방도 제작은 야나기 나라요시(柳橋悦)가 1870년 영국 해군 측량함, 실비아호(HMS Sylvia)와 협동하여 일본 연안 곳곳을 실제 측량하면서 익힌 측량술과 해도제작술의 경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75년 5월 일본 해군은 운양호(雲揚號)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연안에서 무단 측량을 감행하였다. 동해에서 남해를 거쳐 서해 순으로 약 4개월에 걸쳐서 불법 측량을 하였다. 그러던 9월 20일에 강화도 초지진 부근에서 급수를 구실로 조선 수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내륙을 향하여 마침내 조선수군과의 교전을 일으키고 돌아갔다. 그리고 1876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조선 수군의 선제공격을 빌미로 삼아서 무력을 동반하여 한국과의 강화도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은 한국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이다. 더욱이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한국 연안에서 일본 군함의 측량 또한 합법화되어 일본 군함은 한국의 해역에서 자유자재로 측량을 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적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²⁸⁾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는 일본 해군이 한국연안을 조사·측량한 결과물이다. 1894년에는 『환영수로지』 2판 2권(1886)에서 한국(조선)과 후룡강 지역을 함께 다루었던 것을 『조선수로지』와 『후룡연안수로지』로 각각 분리시켜 편찬 발행하였다.

『조선수로지』의 제1편은 영국 해군 수로부의 『지나수로지(支那水路誌)』에 의거한 것이지만, 나머지 편은 1877년에서 1889년까지 일본 해군이 실제 측량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혀두었다. 이 사실에서 일본해군은 강화도조약 체결이후 한국 연안을 끊임없이 측량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수로지』에서 필자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일한양어대조표(日韓兩語對照表)’이다. 이 표는 항해 관련 용어를 수록한 것인데 한자 아래에 한국어의 음가를 가타카나 즉 일본어로 기록해 두었다. 『조선수로지』의 독자층이 일본 해군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해군이 한국어 항해용어를 보다 신속하게 익히도록 첨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연안을 신속하게 장악하기 위한 일본 해군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면이다.²⁹⁾

일본 해군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군함을 시시때때로 운행하

28) 한철호(2015),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 [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 역사논총』 50, 6~7쪽.

29) 이근우(2019), 「근대일본의 조선 바다에 대한 서지학」, 『바다』 24-3, 한국해양학회, 451~452쪽.; 水路部(1894), 『朝鮮水路誌』, 凡例 뒷면 3장 첨부.

雪	霜	露	電	雷	霧	雨	雲	晴天	星	月	日	天	日	天:하-노루(하늘) 日:나루(날) 月:다루(달) 星:베루(별) 晴天(晴天):쾌청 曇天(曇天):흐림 雨:비-(비) 霧:안가이(안개) 雷:우-로-(우뢰)	
ハル	ナ	ハ	ト	ク	ク	ク	ク	ク	ク	ク	ク	ク	日		日韓兩語對照表 日韓兩語對照表 日韓兩語對照表 日韓兩語對照表
逆風	順風	潮流	南風	北風	北風	南風	西風	東風	暴風	風	風	風	日		
逆風	順風	潮流	南風	北風	北風	南風	西風	東風	暴風	風	風	風	日		
逆風	順風	潮流	南風	北風	北風	南風	西風	東風	暴風	風	風	風	日		
暗礁	小潮	大潮	退潮	落潮	漲潮	漲潮	船ノ動搖	下手廻シ	上手廻シ	風上	風下	風上	風上	日	
暗礁	小潮	大潮	退潮	落潮	漲潮	漲潮	船ノ動搖	下手廻シ	上手廻シ	風上	風下	風上	風上	日	
暗礁	小潮	大潮	退潮	落潮	漲潮	漲潮	船ノ動搖	下手廻シ	上手廻シ	風上	風下	風上	風上	日	
暗礁	小潮	大潮	退潮	落潮	漲潮	漲潮	船ノ動搖	下手廻シ	上手廻シ	風上	風下	風上	風上	日	

<그림 3> 일한양어대조표(日韓兩語對照表)
 *출처: 『朝鮮水路誌』, 1984.

면서 한국 어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편 일본 어부들의 안전한 조업을 도우면서 한국 연안 지배권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조선수로지』는 일본 해군 군함의 안전 항해 및 정박 그리고 원활한 군수물자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 바다에 대하여 통상적인 해상 기상, 조류, 향로, 암초 그리고 연안의 지형, 정박지, 등대, 항만시설 등 군사적인 측면에서 조사된 기록물이다.

그런데도 『조선수로지』에 수록된 여러 정보는 「한국연안조사보고서」와 함께 『한국수산지』 편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일본 해군은 실측 및 해양관측을 실시하여 해도를 제작하였다. 초기의 일본 해군 해도에는 원도(原圖)를 제작한 국가명과 제작 연도가 밝혀져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 해군의 해도는 독자적으로 제작한 해도가 아니라 구미의 해도를 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즉 구미의 원도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이 재측량 한 후 원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일본 해군의 해도로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해도는 원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일본식으로 수정할 수는 없었다. 원도에 기록된 영어(외국어) 지명 등의 명칭들은 대부분 한자로 변환 가능하였지만 한자로 변환할 수 없는 외국어 명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어(외국어)의 음가를 그대로 가타카나로 표기해 두었다.

그런데 한국 연안인데 왜 영문 명칭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당시 구미의 국제질서인 만국공법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미 열강들은 문명이 뒤떨어진 나라를 먼저 점유한 국가가 그 소유권을 갖는다는 선점(先占) 논리를 설정해 두었다. 구미 각국에서 제작한 해도에는 측량국가, 측량일자, 간행일자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해도에 실측했던 선박명, 또는 선장명, 주요 인물명 등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것은 해도를 제작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암초, 수로 등의 명칭에 편의상 기록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구미의 국제질서인 만국공법의 선점 논리에 입각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두었을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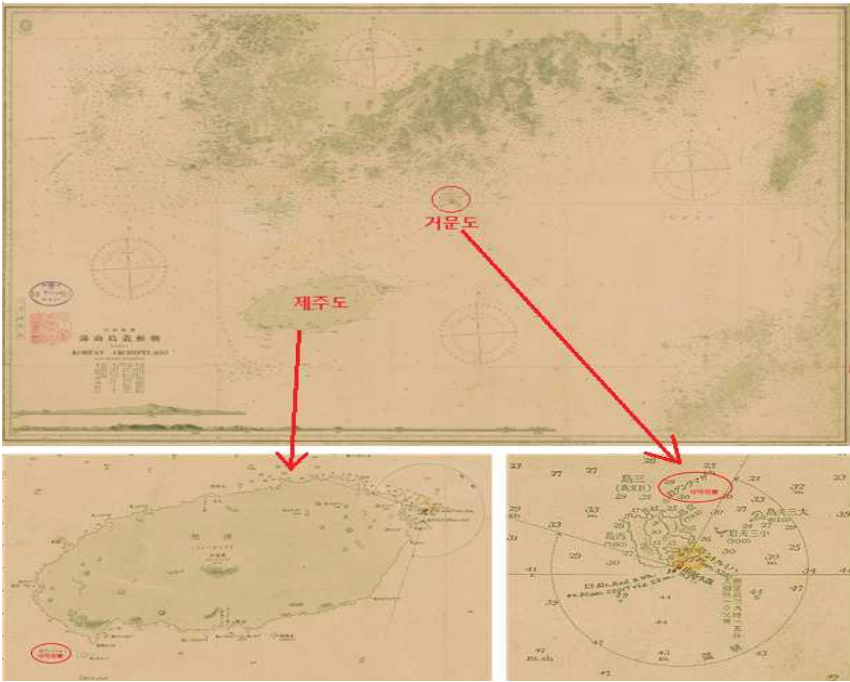
이에 따른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명치21년(1888) 12월 일본 해군 수로부가 간행한 海圖 320号(朝鮮叢島南部)³⁰⁾에는 거문도 부근에 해밀턴항(ハミルトン港)과 사마랑암(サマラング岩)이란 일본어(가타카나)가 표기되어있다. 이 해도는 1845년 영국 해군 함정, 사마랑(Samarang)호가 제주도과 거문도의 일대를 무단 측량한 해도를 토대로 일본 해군이 다시 측량한 후 수정 보완한 것이다.³¹⁾ 해밀턴과 사마랑의 경우는 한자로 변환할 수 없었으므로 영어의 음가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것이다. 해밀턴항은 현재, 거문도 여객터미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해당되는 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마랑암은 동도(거문도의 3島 중, 동쪽에 위치한 섬)의 북단에 위치한 간여라는 바위섬 부근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해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마랑암이 거문도 외에 제주도에도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제주도의 남서단에 위치한 발로도(バルロ-島)³²⁾라는 섬의 서쪽에 사마랑암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마랑암은 카카오맵, 구글맵, 네이버맵 등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 바다 속에 존재하는 암초로 추정되며, 사마랑호가 실측하면서 항해 안전을 위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³³⁾ 1845년 영국 함정 사마랑호가 한국의

30)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dtl.php?fm=l&ghzno=KY011156>(검색일:2019.02.10.)
海圖320号, 日本 海軍 水路部, 明治21年12月 発行.

31) 海圖320号(朝鮮叢島南部)는 ‘測量機關國:英海軍’이라고 명시되어있다.

32) 발로도는 지금의 가파도를 말한다.

33) 서경순·이근우(2019),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46~149쪽.



<그림 4> 海圖320号(朝鮮叢島南部)

남해 일대에서 무단 측량을 실시하고 돌아간 후 40년이 지나 1885년에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여 1887년에 철수한 사건이 있다. 점령 사유는 러시아 남하정책에 대한 방어책으로 거문도를 주둔지로 삼았다는 것이다. 영국 해군이 쉽게 거문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랑호가 한국 연안을 무단 실측하고 간행했던 해도가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45년 사마랑호가 실측하고 간행했던 해도에 사마랑(사마랑암)과 당시 영국 해군성 차관, 해밀턴(해밀턴항)이 기록되어 있었던 점에서 당시 영국 해군이 선점 논리를 갖고 거문도를 점령하였던 것은 아닐까?

Ⅲ.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1. 『한국수산지』의 편찬 배경

1883년 한국과 일본 간의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었다. 한국의 함경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연해와 일본의 히젠(肥前)·치쿠젠(筑前)·이와미(石見)·나가토(長門)·이즈모(出雲)·쓰시마(對馬島) 연해에서 상호 통어를 합법화하였다. 이어서 1888년 인천해면잠준일본어선포어액한규제(仁川海面暫准日本漁船捕魚額限規則) 체결로 인천연해어업허가, 1889년 한일통어장정(韓日通漁章程) 체결로 영해 3해리 어업권이 인정되는 등 한국 연안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은 점점 유리한 조건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그런데 당시 한국 어부들은 연안에 수산물이 매우 풍부하여 연안 조업으로도 소비 충당이 가능하여 굳이 먼 외해로 나가서 조업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어선 및 어구 어법이 연안 맞춤형이었다. 그러므로 먼 외해로 출어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상황이 달랐다.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 구미의 만국박람회에 참가하면서 견학을 통하여 수산의 가치가 국가의 큰 재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수산진흥사업을 실시하여 어선 어구 어업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구미에서 들여온 선진 포경기술 및 잠수기, 편망기계, 통조림 기계 등은 수산업 발전을 한층 견인하였다.³⁵⁾ 그런데 정작 일본 연안의 사정은 남획으로 인한

34)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28~132쪽; 서경순(2021), 『메이지시대의 수산진흥정책과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편찬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쪽; 김문기(2017), 「海權과 漁權: 韓淸通漁協定 논의와 어업분쟁」, 『大丘史學』 126, 대구사학회, 257~258쪽, 260~262쪽; 장수호(2004), 「조선왕조말기 일본인에 허용한 입어와 어업합병」, 『수산연구』 21,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56쪽, 58쪽, 박구병(1966), 『韓國水産業史』, 太和出版社, 269~270쪽; 한임선(2009),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해 通漁논리와 어업침탈」, 부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쪽; 요시다 케이이치 저, 박호원·김수희 역(2019),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23~24쪽.

35)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14~59쪽(1873년 오스트리아 빈 만국박람회(인공부화법 견학 및 편망기계 수입), 1876년 미합중국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연어 인공부화법과 통조림 제조에 관한 진공화 기술 습득), 1876년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통조림 기계 수입), 그리

실업 어부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수산물물의 보고인 한국 연해에서 찾고자 하였다. 한국연해출어장려시책을 마련하여 자국 어부의 한국 연해 출어를 본격화하였다. 이에 정부의 장려지원에 힘입은 일본 어부들은 선단을 조직하여 한국연해로 출어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한일 간의 장정(조약)은 일본어부들의 한국연해 어업권을 합법화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 바다가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결과가 되었다.

한국 연안에 대한 일본정부의 끊임없는 관심은 자국의 실업어부 문제 해결에 국한된 것이었을까? 당시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던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보호를 위하여 한반도 바다를 장악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연해어업장려시책을 마련하여 자국의 어부들을 한국연안에 대거 출어시켜서 자연스럽게 한국연안을 확보해 나갔던 것은 아닐까?

일본정부는 한국 어장 확보를 위하여 한국연해어업장려시책을 펼치는 한편 근대학문을 익힌 농상무성의 수산전문가를 조선 연안에 파견하여 한국연안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연안조사보고서」 등을 간행하여 낯선 한국연해에 출어하는 일본 어부와 수산업자에게 한국연안 정보지로 제공하였다.

일본에서 한국 연안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결과물은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關澤明清·竹中邦香 공저, 1893)³⁶이다. 수산국의 세키자와 아케키요를 비롯한 일행들에 의해 한국의 함경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경기도·충청도 연안지역에 대한 수산일반과 당시 한국연해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서적의 총론에는 주목할 내용이

고 1880년 독일수산박람회 참가 이후 일본에서는 1880년 설치된 농상무성 산하에 수산업부 전담기관인 수산과(이후 수산국)를 설치하고 근대수산을 익힌 수산전문가를 채용하여 수산진흥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882년 일본 최초 수산단체 ‘대일본수산회’를 조직하였다. 이 수산단체는 독일의 수산단체를 모델로 하였다. 1883년에는 내국수산박람회를 개최하여 일본 전 지역의 출품을 통하여 어구 어법 제조법 양식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 전통 어법, 수산물제조법, 양식법 등에서 우수성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여 열악한 지역에 보급하는 등 전국의 수산진흥사업을 도모하였다. 1888년에는 일본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를 설립(1889년 개소, 1897년 수산강습소)하여 근대학문을 익힌 수산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내 수산진흥사업과 아울러 해외 수산물 수출극대화를 도모하였다.

36) 朝鮮通漁事情(1893), 關澤明清·竹中邦香 공저

있다. 일본 어부들이 한국연해로 출어해서 조업하면 조류, 해저, 암초 유무 등 한국의 연안 지리 등을 저절로 숙지하게 되어 이를 군사상 이용하면 대단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해군으로 삼으면 먼 장래 도움이 되어 국가의 큰 이득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일본 해군의 해도가 오류가 많은 데 이 어부들을 물길 안내자로, 그리고 측량함이 명확한 해도를 작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기록해 둔 점이다.³⁷⁾ 세키자와는 당시 식산흥업을 주관하는 중앙관청인 농상공부 산하의 수산국 고위층 공무원이었다. 더욱이 그는 일본 정부가 공인한 최초의 수산기사 1호였던 점에서 세키자와의 기록은 당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연해출어장려시책의 이면에서 군사적 논의가 있었던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일본정부의 본격적인 한국연해출어시책에 의해 한국 연해에 출어한 일본어부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감독통제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는 1902년 4월 1일 「외국영해수산조합법(外國領海水産組合法)」을 공포하고 외국영해로 진출하는 어업자를 보호 지원한다는 구실로 각 부현 단위로 조선해통어조합(이후 조선해수산조합)을 조직하여 강제 가입 시켜서 감독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1905년 3월 1일에는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하여 한국연해출어장려지원은 물론이고 한국 내에 일본인 이주지 확장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주지확장사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곳은 조선해수산조합이다. 이곳에 파견된 수산기사들이 앞장서서 한국의 어장과 토지를 매입하여 한국 연안지역 곳곳에서 일본인 이주어촌이 확대되어 갔다.

이에 앞서 러일전쟁 당시 일본정부는 일본군 보급품 운송을 빌미로 황해도와 평안도의 연안에서 일본어부의 어업을 합법화시키면서 한국의 전 연안이 일본 어부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바다는 1910년 한국병합 전에 이미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과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후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한국 조사를 실시하였

37) 이근우(2012), 「明治時代 일본의 朝鮮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쪽

다. 수산조사는 1908년 『한국수산지』 편찬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수산분야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³⁸⁾

2. 『한국수산지』의 편찬 목적

『한국수산지』 제1집의 서두에는 소네 아라스케(曾祢荒助)³⁹⁾와 이완용의 글씨와 인영이 있다. 이것은 『한국수산지』의 편찬사업은 한일 양국의 국책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 체결,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주권을 일본정부가 이미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완용을 내세운 것은 형식상의 절차였다.⁴⁰⁾ 『한국수산지』의 제1집의 서문을 통하여 편찬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자.⁴¹⁾

(1) 조중응(趙重應)⁴²⁾의 서문

“수산(水産)이란 물에서 산출되는 것인데(중략)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를 면하고 있고 육지 안에도 산에 물이 많으며, 해산물의 이익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중략) 이를 개발하고 권장한다면 크게는 전국의 큰 재원이 될 것이고 작게는 한 사람의 생업을 유지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농상공부가 수산국을 설치하였으니, 수산국이 힘써야 할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통감부 및 조선해수산조합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여 각 道의 수산조사법을 시행하고 편집하여 조사지를 만들고 출판하여 간행하였다. 수산업에 있어서 경영의 지침이 되고 지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실력이 부족한 농부(農部)가 이 책을 보면 전국의 재원의 이익과 국민에게 생업을 줄 수 있는

38)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27~130쪽;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2021, 6~7쪽.

39) 당시 초대 통감 伊藤博文, 부통감 曾祢荒助(そね あらすけ)이었다. 1909년 伊藤博文을 이어 曾祢荒助가 2대 통감이 되었다. 『한국수산지』에 날인된 인장에는 曾祢荒助라고 되어 있는데 祢은 禰의 新字体이다(야후재팬, 『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40)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29~132쪽;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204~205쪽, 224~228쪽.

41) 농상공부 수산국, 이근우 외 2명 역(2010), 『한국수산지』 1-1, 새미, 13~18쪽.

42) 趙重應(1860~1919), 조선 말 외무아문 참의, 법부 형사국장 등을 지냈고, 대한제국 때는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을 역임, 중추원 고문,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복이 밝혀져 있다(중략) 널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려는 뜻을 함께 가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1908년 12월 종1품 훈1등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

(2) 기우치 주시로(木内重四郎⁴³)의 서문

(중략) 한국의 해안선은 6천 해리에 이르며 무수한 섬들이 잔잔한 과도 사이에 별처럼 흩어져 있으며, 물고기가 풍부하고 조개와 해조가 풍요로워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이다(중략) 어업과 제염의 이익을 다 거두어들이지 못하였고 어로 기술도 아직 발달하지 못하여 (중략) 수산국 직원으로 하여금 두루 13도의 연안 도서 및 하천에 대하여 수산에 관한 실상을 조사하게 하여 이사청 및 수산조합 소속 기술원과 협력하여 직접 보고 발로 확인한 지 1년여 만에 수집한 재료의 개요를 채록하고, 이름 붙이기를 『한국수산지』라고 하였다. 바라건대 한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이하 생략).

1908년 12월 통감부 참여관 농상공부 차관 기우치 주시로

(3) 정진홍(鄭鎭弘⁴⁴)의 서문

(중략) 수산과장 이하라 분이치가 이 일의 책임을 맡아 열심히 처리하였다. 거의 1년 동안 조사 실적을 수집하고 요원들을 독려하여 이 책을 편집하였다. 지리, 어류, 어구, 어기, 어법, 양식, 판매, 저장 등을 망라하여 실으니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중략) 이 책을 통하여 양국 어민이 화목하게 어업을 영위하여 어업의 이익이 발전할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

1908년 12월 농상공부 수산국장 정진홍

43) 木内 重四郎(1866~1925), 1888년 東京帝国 大学法科大学 政治学科를 특별우대생으로 졸업한 후 법제국참사관 試補`농상무성 상공국장`한국통감부 농상공무총장`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11년 귀족원의원, 1916년 京都(교토)府知事に 취임하였다.

44) 鄭鎭弘(1855~1926), 1895년 을미사변에 연루되어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자 통감부에 촉탁되었다. 1907년 농수산부 농무국장, 191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관의, 1921년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195인의 명단에 있다(중추원 46명 중 1인).

(4) 이하라 분이치(庵原文一)의 서문(本書의 由來)

일본국 해안선의 총길이는 약 8,000해리이며 그 수산액이 무릇 1억원(圓)을 웃돈다. 한국 해안선의 총길이는 약 6,000해리인데 수산액은 600~700만원에 불과하다. 즉 비슷한 거리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산출액을 비교하면 후자는 전자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중략) 사업이 부진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개발·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상의 보호와 장려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여서 권유하고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꾀하고 국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중략) 이 분야를 권유·장려할 필요가 생겨서 이를 본부에 제의하고 통감부 및 탁지부와 교섭하였더니 다행히도 허락해 주셨다. 명치40년(1907)에는 통감부가 소속 기술자의 여비를 다소 지불해주었고 또한 융희2~3년(1908~1909)에는 본부 임시수산조사비로 많은 경비를 지급해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사항목 및 순서를 갖추어 전국 연해 및 하천 조사에 착수할 기회를 얻었다. 조사방법은 전국을 14구로 하고 각 구역마다 담당 조사원을 두었다. 특히 하천어업 및 염업조사원 몇 명을 두어 조사하도록 하였고 편집원을 고용하여 이를 편찬하게 하였다(중략) 자세한 것도 있고 성근 것도 있으며 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어서, 그 내용이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정 당국자와 어업에 뜻이 있는 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본서를 간행하는 목적이므로 어업 장려를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이하 생략).

1908년 12월 통감부 기사 농상공부 기사 농상공부 수산국
수산과장 이하라 분이치

앞에서 제시한 농상공부 중역들의 4개의 서문 내용을 종합해 보자. 당시 한국 연안에 수산물이 매우 풍부하지만 생산 소득이 너무 낮아서 수산진흥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어구·어법, 수산물 제법 등을 전수하는 등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한

다는 사실을 밝혀두었다. 그리고 수산진흥사업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어부 및 수산관계자들에게 수산지침서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지』를 편찬한다는 주목적을 밝혀두었다.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은 『한국수산지』는 수산업 경영의 지침 및 지도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수산 개발하여 국민의 이익과 부국을 기대하였으며 농상공부 차관, 기우치 주시로와 수산국장 정진홍은 『한국수산지』가 한일 양국 어민의 어업 이익과 함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산과장 이하라 분이치의 경우에는 『한국수산지』는 국가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국가와 국민이 한국 측인지 일본 측인지 양국 모두를 말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 더욱이 시정 당국자와 어업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한국수산지』를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어업 장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⁴⁵⁾ 그런데 『한국수산지』는 전체 일본어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하라는 『한국수산지』 편찬사업을 착수할 때 이미 독자층을 일본인에 국한시킨 것이며, 한국인은 배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한국수산지』의 편찬담당자 23명 중 한국인 1인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점 또한 이 사실에 부합된다. 『한국수산지』는 일본 어부들의 한국 연해 출어 장려 및 일본 수산업자의 한국 수산물 유통 및 경제활동을 촉발시키기 위하여 한국 각 연안지역의 구체적인 수산정보 요구에 부응하여 편찬된 것이다.

3. 『한국수산지』의 구성 및 편찬조사자

『한국수산지』는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집은 한국수산의 총론이며, 제2집~제4집은 한국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함경도를 시작으로 동해에서 남해 그리고 서해의 평안도를 마지막으로 각도별에 대한 개황과 연안 지역의 수산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기술 형식은 조사지역의 연혁, 지세, 경계, 교통, 물산 등을 먼저 정리한 다음 수산 상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조사지역 내에 일본인이 근거할 경우는, 일본인의 출신지, 선단명, 어획

45)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31~132쪽.;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226~228쪽.

어종 및 물량, 어획물의 유통 경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기록하였다. 이 정보는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일본 어부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였다. 『한국수산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⁴⁶⁾

〈표 1〉 『한국수산지』 구성

순서	구 성	편찬기관	발행일자
제1집	제1편 지리, 제2편 수산일반	통감부 농상공부	융희 2년(1908년) 12월 25일
제2집	제1장 함경도, 제2장 강원도, 제3장 경상도		융희 4년(1910년) 5월 5일
제3집	제4장 전라도, 제5장 충청도	조선 총독부 농상공부	명치 43년(1910년) 10월 30일
제4집	제6장 경기도, 제7장 황해도, 제8장 평안도		명치 44년(1911년) 5월 15일

〈표 1〉에서 『한국수산지』 제1집~제2집은 편찬기관을 통감부 농상공부로, 발행일자에 한국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제3집~제4집에는 편찬기관을 조선총독부 농상공부로 발행일자에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과 관계가 있다.

『한국수산지』의 각 권의 조사 내용은 매우 방대하다. 편찬조사자들이 일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낯선 한국 지리와 언어 또한 미숙했던 점에서 매우 신속하게 조사 편찬되었다. 이것은 이미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여러 차례 한국 연해에 파견했던 수산전문가에 의해 조사 간행된 다양한 「한국연안조사보고서」와 일본 해군이 간행한 『조선수로지』 등의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던 점과 아울러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각 군(郡)의 보고서 등의 자료 또한 활용할 수 있었던 점에서 가능하였다. 또 하나는 『한국수산지』 편찬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업무의 분업화가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수산지』 편찬조사자 23명의 직책과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자.⁴⁷⁾

46)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32~134쪽, 156쪽.;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6~7쪽.;

47) 앞의 책(이근우 외 역), 17~18쪽.; 이근우(2011), 「『韓國水産誌』의 編纂과 그 目的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7, 105~106쪽, 111~112쪽.;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222~223쪽.

<표 2> 『한국수산지』 편찬조사자 (1908~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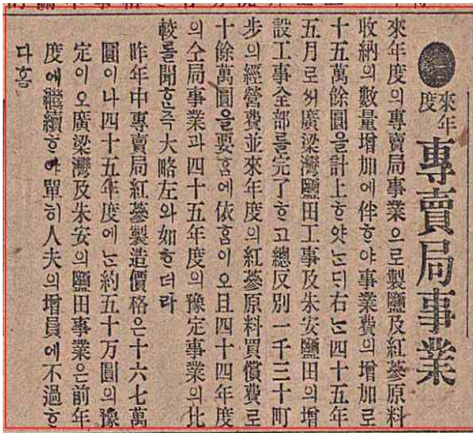
학력	구분	성명	조사 구역	직책
수산전습 (강습)소 교사		塚本道遠	염업조사 감사	농상공부 염무과장, 염무기사
		岡田信利	낙동강	농상공부 사무촉탁
수산전습소	1기	庵原文一	조사·편집총괄 책임	농상공부수산과장 『한국수산지』 총괄
		中西楠吉	강원	통감부 기수
	3기	佐藤周次郎	함북 및 부속도서	
	4기	下村省三	경기	통감부 기수
	5기	遠山龜三郎	편집 보조·전남 동남/경남서부	농상공부 기수
	6기	池内猪三郎	편집 보조 및 평북	臺南縣 촉탁, 통감부 기수, 농상공부 기수
	7기	吉崎建太郎	편집 보조·제주도	권업모범장 기수, 수산조사소 기수, 통감부기수, 농상공부 주사(기수)
	8기	大野潮	충남	통감부 기수
		林駒生(48)	경남 동부 /경북	통감부 기사
	9기	高妻政治	충남	조선해수산조합 기수
大坪興一		함남	조선해수산조합 기수	
수산강습소	30 년 49)	正林英雄	강원·황해 ⁵⁰⁾	30년(1897) 수산전습소 교원양성과 졸업, 長崎縣 기수, 조선해수산조합 기수
	31 년	松生猪三男	황해	31년(1898) 제조과 졸업, 조선해수산조합 기수
	31 년	木村廣三郎	경남 중앙	31년(1898) 어로과 졸업, 34년(1901) 원양어업과 졸업, 통감부 기수
	32 년	樋口律太郎	평남, 황해 서북	32년(1899) 어로과 졸업, 조선해수산조합 기수
		大庭弘雅	전북 전남 서북	32년(1899) 어로과 졸업, 통감부 기수
32 년	富樫恒 ⁵¹⁾	전남 서남	32년(1899) 제조과 졸업, 조선해수산조합 기수	
농상공부		平井義人	영업조사	농상공부 기수
		熊田幹之郎	편집주임	농상공부 편집 사무 촉탁
		堀部良七	한강	농상공부 주사
		巖台永	한강	농상공부 서기관

<표2>에 제시한 대로 『한국수산지』의 편찬조사자는 모두 23명이다. 이 중 유일한 한국인, 엄태영(농상공부 서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이며, 통감부 및 조선해수산조합에 소속된 수산기사(기수)들로 일본 정부의 공무원들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일본 최초의 수산전문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이후 수산강습소) 출신으로서 국가의 수출진흥사업과 연계된 수산교육을 철저히 받게 받았던 사람들이다. 더욱이 쓰가모토 도엔(塚本道遠)과 오가타 노부토시(岡田信利)는 이 교육기관의 교사들로 일찍이 근대학문을 익혔던 지식인이다.

쓰가모토 도엔(塚本道遠)은 염전기사로 농상공부의 염무과장과 염업시험장의 장장(場長)을 겸임하고 있었다.

염업시험장은 『한국수산지』의 편찬사업이 실시되기 1년 전, 1907년에

소금사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연안 2곳에 설치한 시험염전을 말한다. 동남해 연안지역인 용호동에는 전오식 시험염전을, 서해 연안 지역인 인천군 주안면에는 천일염 시험염전을 각각 설치하였다. 천일염은 종래 한국에는 없었던 것으로 주안면 염전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천일염 시험염전이다.⁵²⁾ 염전시험 결과, 천일



<그림 5> 每日申報 1912년 3월 20일자 2면3단

- 48) 조선해통어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원산지부의 이사였으며(봉급 50엔), 조선해수산조합에서는 명예 부주장(1910 현재)을 맡았다.
- 49) 明治 30년(1897)을 말한다. 1897년 수산전습소를 폐소하고 이를 계승한 수산강습소를 설립하여 수산전습소의 제학생들을 모두 수산강습소로 이적하였다.
- 50) 正林英雄이 황해도(북서부 제외) 및 부속도서를 조사한 것은 松生猪三男이 조사 중에 사망하자 그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보인다.
- 51) 조선해수산조합본부에서 사업과의 사무촉탁이었다.

염 염전이 전오식 염전에 비하여 경제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자 주안면 천 일염 시험염전의 규모를 보다 확장시켰다. 주안면 염전의 생산량은 당시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으며 한때 소금산지 대명사라고 할 만큼 유명한 소금특산지로 거듭났다. 1912년에는 주안면 소금에 전매제도를 도입하여 관영화 추진을 발표하였다(그림 5).

소금은 예로부터 화폐 기능을 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물산으로 국가산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였다. 『한국수산지』의 편찬 총괄을 맡은 이하라 분이치가 한국연안 지역을 14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 조사를 실시 하면서 염업조사를 구역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조사를 실시한 점에서 당시 수산진흥사업에서 염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점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6> 韓國沿海水産物分布圖

* 출처: <https://dl.ndl.go.jp/info:ndljp/pid/802152>(일본국회도서관)
http://nrifs.fra.affrc.go.jp/book/D_archives/2012DA103/jpegver.html
 (검색일: 2020. 09. 20.)

농상공부 수산국에서는 『한국수산지』 제1집을 간행할 때 부속지도로

52) 『한국수산지』 제1집의 첨부 사진의 설명: 1908년에 동남해에 있던 용호동의 시험염전은 용호출장소로, 인천군 주안면의 서해 염전은 주안출장소가 되었다.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韓國沿海水産物分布圖)」라는 대형지도를 간행하였다. 이 지도에는 다음의 설명이 있다(그림 6).⁵³⁾

”이 지도의 연해 지형 및 수심, 저질(底質) 등은 일본 수로부 간행의 조선전안도(朝鮮全岸圖)를 근거로, 우편·전신·전화선로는 일본 명치 41년(1908년) 3월 통감부 통신관리국의 통신선로도를 근거로, 등대·측후소(測候所), 경찰, 세관 등 기타의 관공서, 단체 등의 배치는 각 관청 간행의 보고서를 근거로, 水溫 溫線은 인천 관측소 소장 和田雄次の 조사 보고한 것을 근거로, 수산물 분포도는 각 조사원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했다”

융희2년(1908년) 12월

농상공부 수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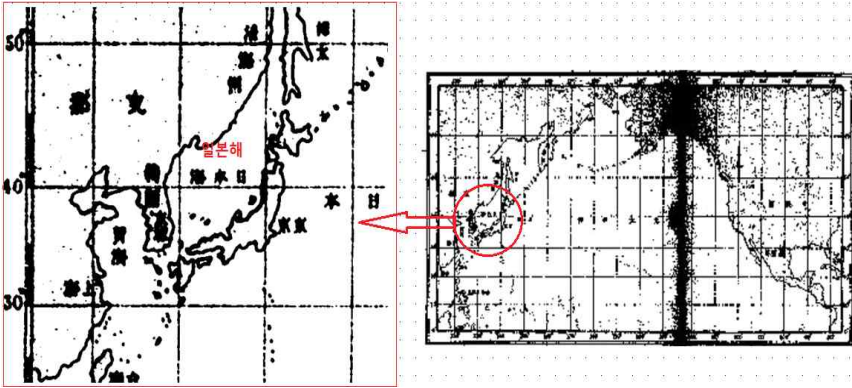
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는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한 해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지도 제목이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인 만큼 지도의 각 연안에는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수산물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항로와 방위, 저질과 수심을 나타낸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 연안 어업에 낯선 일본 어부들이 한국의 어업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 더욱이 함경도 연안에는 명태, 경북 연안에는 정어리(멸치), 제주도 연안에는 전복·해삼, 전라도 연안에는 조기, 황해도 연안에는 새우 등의 각 수산물에 성어지를 굵고 진한 글씨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주요 수산물, 즉 지역의 특산물을 강조한 것이다.⁵⁴⁾

그리고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에는 해안부의 정보 외에도 내륙부에 國界, 道界, 철도를 나타낸 여러 선과 각 지역에 등고선을 비롯한 다양한 기호들이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호의 설명은 지도 아래쪽에 범례를 통하여 밝혀두었다.

그리고 범례 바로 위에는 부가적인 지도(그림 7)를 배치하였다. 이 지도

53) 農商工部水産國(1908), 「韓水國水産誌 .韓國沿海水産物分布圖」

54)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32~133쪽.



<그림 7>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의 부속지도

에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미합중국 대륙을, 왼쪽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의 대륙이 그려져 있다. 지도 전체에 보이는 격자 모양은 위선과 경선을 나타낸 것으로 언뜻 보기에 17세기 유럽에서 성행한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 제작된 해도의 견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즉 동해에 일본해라는 한자를 표기해 둔 점이다. 이 지도는 한국연해의 수산물분포도에 대한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굳이 이 지도를 배치한 것은 일본해를 강조하기 위한 수산국의 의도가 아닐까?

「한국연해수산물분포도」는 한국 내 근린생활 및 어업에 대한 정보가 1장의 지도에 축약되어 있다. 당시 한국에 출어한 일본어부 및 거류 일본인에게 유익한 정보 역할을 제대로 하였을 것이다.

IV. 경상도 동해 연안지역

경상도의 해안선은 동해안에서 남해안까지 이어져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수산지』 제2집에 기록된 경상도의 동해 연안지역으로 축소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상도의 동해안에서 만입(灣入)된 곳은 경상북도의 영일만과 경상남도

의 울산만 2곳이 대표적이다. 영일만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만입되었으며, 입구는 넓어도 굴곡이 적어서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는 풍랑을 막기에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울산만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만입되어 있고, 굴절된 곳이 많아서 풍랑을 막기에 적합하고 수심 또한 깊어서 큰 선박이 정박할 수 있다. 작은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양항(良港)으로는 축산포(영해군), 강구(영덕군), 도항, 여남, 호포(홍해군), 구룡포, 모포, 감포, 전하포, 일산진, 방어진, 장승포, 세죽포, 서생, 대변, 용호 등 여러 곳이 있다.⁵⁵⁾

그리고 1909년 현재 경상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약 43,300명이며 이중 부산 및 마산지역을 제외한 연안 지역 일본인 거주자는 약 7,000명이다. <표 3>은 경상도 동해지역의 일본인 거주자의 근거지와 호수(인구)를 나타낸 것이다.⁵⁶⁾

<표 3> 경상도 동해지역의 일본인 거주자(1909년 현재)

도별	지명	호수	인구	관할이사청
경상북도	영해군	12	25	부산
	영덕군 진천	31	77	
	청하군	15	25	
	홍해군	29	108	
	영일군 포항	30	105	
	그 외 영일군	65	251	
	경주	73	205	대구
경상남도	울산군 진하·일산·울기	19	24	부산
	울산군 방어진	50	130	
	울산군 장승포	23	65	
	울산군 내해·세죽포	35	224	
	기장군	10	18	
	동래군 용호·용당	11	37	

『한국수산지』 제2집의 권두에는 제1집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진이 첨부

55) 農商工部水産國(1910) 『韓國水産誌』 第2輯, 415~416쪽.

56) 農商工部水産國(1910), 『韓國水産誌』 第2輯, 426~437쪽

되어 있다. 사진을 촬영한 곳은 대부분 조사구역에서 다소 떨어진 언덕 또는 조선해수산조합본부의 순라선(巡邏船)의 선상이다.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지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⁵⁷⁾ 사진 대부분이 어업과 관계가 있지만 정박지·항만·등대 등 군사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도 다수 있다. 첨부된 사진에는 모두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그중에 조선해수산조합본부(朝鮮海水産組合本部)가 땅을 매입하여 일본인이 이주한 곳 또는 일본인을 이주시킬 계획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당시 일본 정부가 추진하였던 한국 내 일본인 이식지 확장 건설에서 앞장선 단체가 조선해수산조합이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조합의 전신은 조선해통어조합이며, 이후 본부를 부산에 설치하고 수산기사들을 파견하여 통감부의 지시를 따르게 하였다. 주요업무는 어선 어구개량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보호 단속, 조난 구제, 조합원의 행정서류와 통신 등을 대행하였으며, 조합원 분쟁에 대한 중재 역할과 조합원 공동이익 증진에 힘썼다. 그리고 일본인 근거지에 감독 1명을 선출하여 이주 어민들의 어획물을 비롯한 일체에 대한 감독 지휘권을 주어 공동판매·구입 등 공동 운영방식을 취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일본인 이주어촌 건설에 조선해수산조합본부의 수산기사들이 앞장서서 한국의 어장과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조선해수산조합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인 이주어촌 건설정책은 한국 식민지화의 연장선에서 실시된 정책이었다.⁵⁸⁾ 『한국수산지』 제2집에 첨부된 동해안 지역의 사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57) 『한국수산지』의 편찬 총괄책임자 이하라 분이치의 서문에는 황해도 조사책임자였던, 마츠오(松生猪三男)가 현지 조사 중에 목숨을 잃은 사실이 밝혀져 있다.

58)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43~145쪽;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206~208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검색일:2022. 09. 24)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A1%B0%EC%84%A0%ED%95%B4%EC%88%98%EC%82%B0%EC%A1%B0%ED%95%A9&ridx=0&tot=11211>(검색일:2022.09.24.)

59) 『韓國水産誌』 第2輯, 권두 사진 1~24쪽.

<표 4> 『한국수산지』 제2집 권두사진(발췌)

사진 장소	구분 60)	사진 설명
북한 청진항	1	청진:유희2년(1908)에 개방된 북한의 주요항으로 일본인 거의 거주, 독진:청진 남서쪽 경성만 항구. 큰 배는 대기 어렵지만 상선이 상시 폭주
경성만 내 독진		
울릉도 저도에서 독도 ⁶¹⁾ 를 바라보며		
울릉도 東岸 저동(亭洞)		
울릉도 南東岸 도동(道洞)의 설경	3	울릉도:동해 ⁶²⁾ 에 떠있는 외딴섬, 배를 댈만한 적지 없음, 오징어어업 융성. 저동:울릉도 동안 자갈해안, 일본인 근거지 있음
울릉도 도동항 서쪽 풍경	4	
오징어 성어기의 도동항	5	도동항:울릉도 남동안의 유일한 정박지, 행정소재지가 있는 곳, 일본인 집단지 있음. 남양동:울릉도 서안 자갈해안, 러시아인들이 수목을 반출해 간 장소
울릉도 西岸 남양동 [コウリケン]		
울릉도 北岸 추산 [ソコサン]		
장기군 구룡포(九龍浦)	8~9	삼치어장, 해조류
장기군 모포(牟浦)	10	미에현 어부:정어리 지예망 어업 참고
미포(尾浦)	11	시마네현 어업근거지 :지예망
경북 東岸 울기 등대	12	위치:울산 만구 북동쪽, 첫 점화:명치 39년(1906년) 3월
방어진	13~15	삼치어장 가가와, 오카야마, 후쿠오카현의 공동 근거지
장생포(長生浦)	16	세관감시소 있음. 동양포경주식회사(고래 해체장). 위치:장생포 맞은편, 일본어부 근거지(잠수기선) 담성상회(통조림제조소)/일본인회(일본인 거주자)
울산만 內 및 울산어시장		
세죽포	19	위치:울산군 대현면 도미, 가자미, 가오리 어장/일본 어부 10호(69명)
서생강	20	위치:울산군 온산면 일본어부의 지예망 참고
대변만	21	선두포(船頭浦)라고도 함(기장군). 삼치어장. 후쿠오카 어부의 근거지, 미에현 어민 이주.
부산수산주식회사 어시장	23~24	위치:부산 남빈정 1907년 부산수산회사(1889) 계승

〈표 4〉에 제시한 한국 동해의 주요 어장, 등대, 어시장은 일본 어부들의 어업과 관계가 있다.

당시 동해 연안에서 산출된 수산물은 고래⁶³⁾ 상어⁶⁴⁾ 정어리⁶⁵⁾ 청어 도미⁶⁶⁾ 고등어 삼치⁶⁷⁾ 갈치 가자미 방어 붕장어 오징어 해삼 전복⁶⁸⁾ 미역 우뚝가사리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해조류 중 미역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조류 중 으뜸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한천의 원료가 되는 우뚝가사리가 훨씬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우뚝가사리는 당시 고가로 경제 가치가 매우 높은 해조류이자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다. 방어진은 동해에서 미역과 우뚝가사리의 유명한 산지이다. 이곳에 제주 해녀와 일본인 해녀들이 무리를 지어 와서 미역과 우뚝가사리를 채취해 가는 바람에 방어진 원주민들과 심한 분쟁이 발생하자 마침내 정부가 중재에 나서 외부인 해녀들에게는 입어료를 부가시킨 사례가 있다.⁶⁹⁾ 경상도 동해지역의 일본인의 어업과 일본인 이주어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60) 『韓國水産誌』 第2輯,에 첨부된 사진의 쪽수를 나타낸 것이다.

61) 원문에는 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62) 원문에는 日本海로 표기되어 있다.

63) 고래어업은 일본어업자들의 독점어업이었다. 연안지역에 설립한 고래해체장에서 고래를 부위별로 나눈 후 염장하여 전량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64) 상어어업은 일본어업자들의 독점어업이었다. 일본어부들은 처음에 지느러미만 채취하였지만, 한국인들이 상어살을 식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 시장에 유통시켰다. 이후 어묵재료로 하카다로 운송하였다.

65) 한국에서는 멸치·정어리·눈통멸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일본은 이를 모두 정어리(いわし)로 통칭한다. 정어리는 근대 수산진흥사업에서 주요한 유용수산물 중 하나로 정어리통조림, 정어리유, 정어리 퇴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었다.

66) 일본 통어의 출발이 된 어종이다. 우리나라의 관혼상제에 조기 명태 등을 사용하듯이 일본은 신사에서 도미를 사용하며, 특히 농번기에 도미가 인기가 높았다.

67) 우리나라는 종래 삼치를 亡魚라고 하여 어획하지 않았다. 삼치어업은 한국 연해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의 신흥어업이었다.

68) 전복이나 해삼 등은 한국에서는 오로지 나잠어업으로 채취한 반면에 일본 어업자들은 잠수기 어업으로 많은 양을 찍쓸어하였다.

69) 앞의 책(요시다 케이이치 저, 박호원·김수희 역), 274~275쪽, 278~289쪽..

1. 일본인 어업⁷⁰⁾

(1) 고래의 종류는 긴수염고래, 흑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등이 있다. 어획한 고래는 동양포경주식회사의 고래해체장에서 부위별로 나누어서 염장⁷¹⁾한 후에 전량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2) 청어와 고등어는 영일만, 울산만, 부산만이 주요 어장이며, 염장해서 주로 시장에 운송하였다.

(3) 삼치는 일본에서 매년 몰려드는 어선이 수백 척에 달할 정도로 삼치어업은 번성하였다.

일본인들의 근거지는 축산포과 강구, 여남, 구룡포, 모포, 감포, 방어진, 대변 등이다

(4) 넙치와 가자미는 동해안에서는 10월~12월이 성어기이다. 일본 어부들은 수조망, 타뢰망, 외줄낚시로 어획하며, 겨울에는 활주선(活舟船)을 이용하여 어획물을 산채로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5) 방어는 일본어부들은 외줄낚시, 삼치유망과 지예망 등으로 혼획하였으며, 활주선을 이용하여 산채로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6) 붕장어는 영일만 서쪽 어장에서 거의 일본어부들이 어획하였다.

(7) 상어·복어·오징어의 어장은 영일만에서 일본 어부들은 외줄낚시, 연승, 수조망으로 어획하였다.

(8) 기타 미역,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여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2. 일본인 이주어촌.

경상북도 동해 연안지역⁷²⁾

(1) 축산(丑山)은 영해군의 대표적인 양항이다.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며 일본 잠수기업자 및 삼치유망선의 근거지가 있으며, 일본 정어리 지예망업자의 창고가 있다.

70) 『韓國水産誌』 第2輯, 449~455쪽.

71) 『한국수산지』 1집의 기록에는 당시 고래 1마리를 염장하는데 평균 소금사용량은 약 5,000근(3000kg) 정도인데 여름철에는 평균 약 1만근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72) 『韓國水産誌』 第2輯, 455~493쪽.

(2) 여남포(汝南浦)는 영해군의 남단에 위치하며 영일만에 면한다. 수심이 깊어서 큰배를 정박하기 좋아 상선, 어선의 기항지로, 영일만에서 가장 좋은 피항지이다. 이곳은 야마구치현(山口縣) 수산조합에서 두호포(斗湖浦)와 함께 일본인 근거 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며 3000평의 땅을 구입하여 이주 계획 중에 있다.

(3) 포항은 영일군에 속한다. 거류 일본인이 95호, 357명이다. 이 지역에서 어업자는 오카야마현에서 건너온 5호에 불과하다. 일본 각 부현의 수산조합에서 일본어부들을 이주시킬 계획으로 정해 둔 땅이 많다.

이외에 일본 어부의 근거지가 있는 곳은 후동(厚洞) 놀태(訥台) 모포(牟浦) 양포(良浦) 감포(甘浦) 고라(古羅) 하서리(下西里) 관성(觀星) 등이 있다.

경상남도 동해 연안 지역⁷³⁾

(1) 일산진(日山津)에는 시마네현(島根縣) 후쿠오카현(福岡縣), 미에현(三重縣)에서 온 어부들이 통어하고 있으며, 정주자는 2호 22명이다.

(2) 방어진에는 삼치어업의 성어기가 되면 오카야마현과 가가와현에서 몰려오는 어선이 300척(어부 약 1,500명)이며, 삼치 유망, 정어리 지예망, 청어·방어·우럭·볼락 호망 등으로 어획한다.

(3) 장생포는 장승포 또는 구정동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거류 일본인은 31호 199명인데 어업 종사자는 10호이다. 거류일본인회, 심상 고등소학교, 부산세관감시소, 순사주재소, 우편소 등이 있고 정기선이 기항하였다. 그리고 동양포경주식회사의 고래해체장이 있으며, 고래 포획기가 되면 포경선과 운반선이 활발하게 운행한다.

(4) 내해(內海)라는 곳은 용잠동의 일부인데 일본인 20호가 있다. 이들은 어업과 통조림사업에 종사한다. 통조림의 주원료는 전복이며, 효고현에서 온 모리모토(森本)라는 사람이 운영하였다.

(5) 세죽포(細竹浦)에 일본인 정주자는 10호 69명이다. 이곳에는 조선해 수산조합의 소유지가 있으며, 한일포경회사의 소유지도 있다. 세죽포의 건

73) 『韓國水産誌』 第2輯, 493-528쪽.

너편에 있는 목도(目島)라는 섬은 일본 어부들 사이에서는 세죽포보다 더욱 잘 알려진 곳이다.

(6) 강구포(江口浦)는 일본 어부들 사이에서 가미노타이고(上の太閤)이라고 부른다.

(7) 대변(大邊)에는 조선해수산조합의 소유지에 후쿠오카 어부 12호가 이곳에 이주해 있다.

(8) 용호동은 제염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정주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용호시험염전이 있는 곳이다.

(9) 용당에는 야마구치현 수산조합에서 이주시킨 자가 16호 53명이 근거하며, 이들은 도미와 붕장어 등을 어획한다.

이외에도 달포(達浦)·이진(梨津)·월내·송정 지역에 일본 어부들의 근거지가 있으며 통어자들도 많다.

앞에서 열거한 대로 『한국수산지』 제2집을 통하여 1909년 현재 경상도 동해 연안지역의 일본 어부들의 근거지와 수산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근거지 중에는 조선해수산조합의 소유지가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당시 한국 내 일본인 이주어촌은 자유이주어촌과 보조이주어촌으로 구분된다. 자유이주어촌은 말 그대로 통어하던 일본 어부가 개인적으로 구축한 근거지이다. 그리고 보조이주어촌은 일본 정부가 1905년 원양어업 장려법을 공포하여 한국 내에 일본인 이주어촌 확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이주자에게는 정부 지원이 있었던 것에서 조합의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이주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둘째 각지 어민을 섞어 이주시킬 것, 셋째 가족 전부를 이주시킬 것 등 3가지에 부합해야했다.⁷⁴⁾ 이 가운데 가족 전부를 이주해야한다는 것에서 당시 일본 정부의 이주지 건설 확장정책에 한국 내 일본인 정주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연해에 출어했던 어부들 또한 통어어업에서 이주어업을 선호하면서 일가족이 근거하는 수가 점차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보다 수산단체 즉 정부의 장려지원과 신변 보호가 있었던 점

74) 앞의 책(요시다 케이이치 저, 박호원·김수희 역), 358~367쪽.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통어어업의 경우 왕복 경비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때에 따라서 성어기를 놓칠 수도 있다. 더욱이 바다를 오가면서 풍랑 등의 사고로 재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감수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 결정적으로 이주어업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 있었다. 1908년 한국어업법이 발표되어 어업권 허가를 한국거주자에 제한하였기 때문에 일본 어부들은 어쩔 수 없이 통어어업에서 이주어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⁷⁵⁾

이상과 같이 『한국수산지』 제2집의 권두에 첨부된 사진을 통하여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 연안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곳을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각 연안 지역의 수산 상황과 먼저 진출한 일본 어부들은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진은 근대적인 정보전달 수단에서 등장하였지만 처음부터 사진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많은 사진 자료들은 한국 연해 출어를 희망하는 일본어부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정보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⁷⁶⁾

그럼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를 살펴볼 차례이다.

V. 『한국수산지』의 해도

『한국수산지』 제2집~제4집에는 많은 해도가 첨부되어 있다. 각 해도는 제목에서 어떤 지역을 나타낸 것인지 알 수 있다. 해도의 내륙부에는 주변 지역의 경계를 나타낸 선, 산의 등고선, 교통 도로망 등이 그려져 있으며, 해안부에는 연안 주변의 수심, 저질 등을 나타낸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항로, 등대, 섬(암초), 간석지 등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한국 연해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의 근거지에 대한 내륙부 정보와 안전한 조업을 위한 해안부의 정보를 1장의 해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해도 가운데 일본 해군 해도의

75) 여박동(2002),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도서출판 보고사, 225쪽.

76)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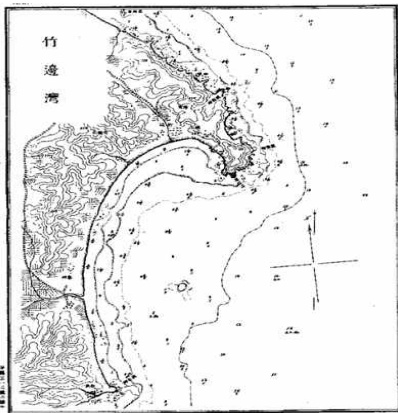
일련번호가 기록된 것이 다수 발견된다. 즉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는 해군의 해도를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는 한눈에 해군의 해도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 해군의 해도에 기록된 뾰족한 숫자와 영문 그리고 기호 등이 많이 삭제되어 빈 공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⁷⁷⁾

『한국수산지』 제2집에 첨부된 해도는 모두 19개이며 이 중에 경상도 동해 연안 지역에 삽입된 해도는 죽변만·축산포·영일만·울산만 등 4개이다. 영일만을 제외한 3개의 해도에 ‘해도 312에 근거(海圖 312號=據ル)’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기록은 일본 해군의 해도를 근거로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성 주체와 간행 연도에 대한 설명이 없이 ‘해도(海圖)’라고만 기록하여 어떤 해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수산지』 제2집의 참고문헌에도 ‘해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수산지』 제2집에 기록된 해도가 삽입된 곳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도 동해 연안지역 해도

1) 죽변만(竹邊灣)⁷⁸⁾: 海圖 312호



<그림 8> 죽변만(竹邊灣): 海圖 312號

죽변만은 울진군에 속한다.⁷⁹⁾ 죽변만은 울릉도와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이다.

울릉도로 가는 많은 항해 선박이 이곳에서 기항한다.

수산물은 정어리, 삼치, 방어, 대구, 고등어, 전어, 도미, 문어, 게 등이며 일본 잠수기선의 중요 근거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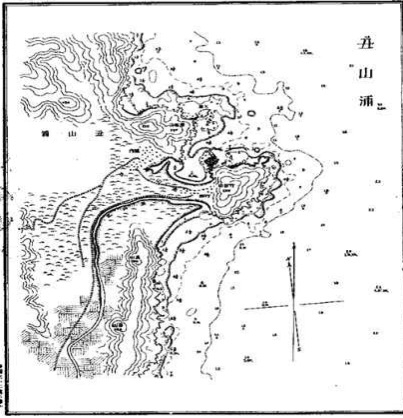
이곳은 시마네현에서 어업근거지로 삼은 곳으로 곧 어민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77) 앞의 논문(서경순·이근우), 146쪽.

78) 『韓國水産誌』第2輯, 『300-301쪽 사이 삽입(죽변만(竹邊灣): 海圖 312號가 기입되어있다)

79) 한국수산지 2집을 편찬 조사를 하였던 1909년에는 울진군은 강원도에 속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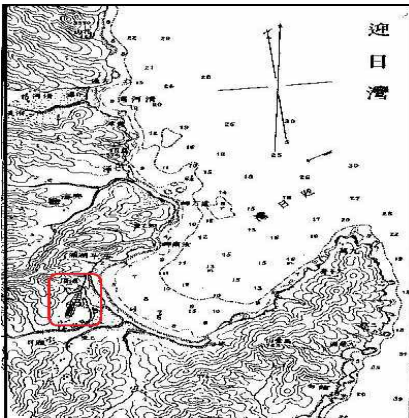
2) 축산포(丑山浦) : 海圖 312호⁸⁰⁾



<그림 9> 축산포(丑山浦): 海圖 312號

축산포는 경상북도 영해군의 대표적인 양항이며, 큰 선박을 댈 수 있다. 어업은 청어 자망, 대구 자망, 수조망, 고등어 유망, 지예망, 삼치 외줄낚시, 해조류 채취를 하며 어획물을 염장하여 대부분 포항 또는 부산에 수송한다. 일찍이 일본 잠수기업자와 삼치유망선의 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1909년)에는 정어리 지예망업자의 창고가 있다.

3) 영일만(迎日灣)⁸¹⁾



<그림 10> 영일만(迎日灣)

영일만은 경상북도 흥해군 달만갑(達萬岬)과 마주하고 있는 큰 만이다.⁸²⁾ 이곳은 수심이 깊어서 거선을 수용할 수 있다. 동해안의 유명한 주요 항만이지만 풍랑을 피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네모 박스로 표시한 곳이 포항이다.

① 포항

영일만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유명한 요항(要港)이다. 이곳에는 거류 일

80) 丑山浦 : 해도 312호에 의거 458~459쪽 사이 삽입

81) 영일만 : 480쪽과 481쪽 사이 삽입

82) 현재 영일만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곶과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의 사이에 있는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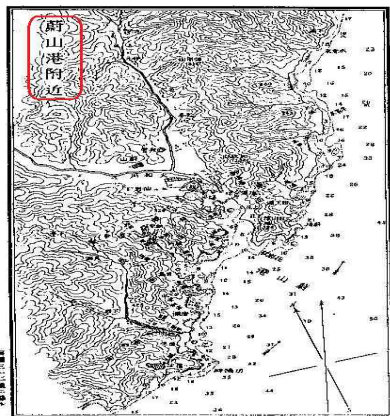
본인이 많으며, 일본의 각 부현 수산조합에서 어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선정해 둔 곳이 많다.

이곳에는 오카야마현에서 출어한 일본어부의 근거지가 있다. 청어, 복어, 장어, 상어 등을 잡는다. 그리고 염전이 있어서 매년 2만석 이상 생산하였다.

② 여남포

영일만에서 가장 좋은 피항지이다. 만입이 있으며, 수심 또한 깊어서 상선, 어선이 기항할 수 있다. 그리고 어획물 집산지로 어획물은 염장하여 흥해 포항 경주 등의 시장으로 운송한다. 이곳은 야마구치현 수산조합에서 토지를 구입한 곳이 있어 현재 어민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4) 울산항부근(蔚山港 附近): 海圖 312호⁸³⁾



<그림 11> 울산항부근(蔚山港 附近)
: 海圖 312號

울산항은 울산만의 양항이다. 울산만에는 미포, 전하포, 일산진, 방어진, 염포, 장생포 세죽포 등의 항구가 있다. 방어진은 울산항의 대표적인 항구이며, 가가와현과 오카야마현 후쿠오카현에서 온 일본 어부 14호(47명)가 근거하고 있다. 후쿠오카의 경우는 수산조합에서 운영하는 이주단체이다. 그리고 울산항의 장생포(장승포, 구정동이라고도 부름)에는 고래해체장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수산지』 제2집에 삽입된 4장의 해도를 살펴보았다. 이 해도 중 영일만을 제외하고 3장 해도에는 해도 312호에 근거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해도 312호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해도번호 312호’가 기록된 목록 표⁸⁴⁾가 있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12>와 <그림 13>에는 ‘해도번호

83) 『韓國水産誌』 第2輯, 494-495 사이 해도 삽입(海圖 312號ニ據ル)

호 312'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 '해도번호 312'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해도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측한 장소가 각기 다르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해도들은 하나같이 『한국수산지』 제2집에 기록된 해도 312호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다. 이점에서 당시 편찬조사자의 오기일 가능성 또는 연도별로 해군 해도의 일련번호가 있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 30°44.4'N,111°18.6'E - 国外 - 中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m27.09	所蔵者 国立国会図書館	
海図番号 312	獺子江上流諸港(宜農) (ようすこうじょうりゅうしょうこう(ぎししょう))			FLAA03025 一般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 30°44.4'N,111°18.6'E - 国外 - 中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m28.06	所蔵者 国立公文書館	
海図番号 312	獺子江上流諸港(ようすこうじょうりゅうしょうこう)			FLAA03281 一般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 30°44.4'N,111°18.6'E - 国外 - 中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m28.06	所蔵者 国立国会図書館	
海図番号 312	釜山港至竹瀝灣(ふさんこういたる たけべわん)			FLAA03056 一般	
圖號 全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一 35°02'N,129°00'E/37°05'N,130°40'E - 国外 - 韓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m39.09	所蔵者 国立国会図書館	
海図番号 312	元山津及西湖津(もとやまづ および さいこづ)			FLAA03283 一般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1:18,174 39°49.3'N,127°38.4'E - 国外 - 北朝鮮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m42.05	所蔵者 国立国会図書館	
海図番号 312	元山津及西湖津(もとやまづ および さいこづ)			FLAA03129 一般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 39°49.2'N,127°38.4'E - 国外 - 北朝鮮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m42.05	所蔵者 国立国会図書館	
海図番号 312	西湖津(さいこしん)			FLAA00212 一般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1:18,163 39°49'N,127°38'E - 国外 - 韓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t11.11	所蔵者 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海図番号 312	元山港(げんざんこう)			FLAA00210 一般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1:18,200 39°07.0'N,127°23.3'E/39°13.4'N,127°29.2'E - 国外 - 韓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s08.02	所蔵者 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海図番号 312	釜山港至眞山港(ふさん いたる さいこしん)			FLAA00211 一般	
圖號 全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1:75,000 34°48.5'N,128°29.0'E/35°15.0'N,129°17.0'E - 国外 - 韓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s08.08	所蔵者 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海図番号 313	釜山港及付近沿岸(ふさんこう および ふきんえんがん)			FLAA03284 一般	
圖號 1/2 緯度經度 離岸 海図	縮尺 1:33,704 35°07.4'N,129°05.3'E - 国外 - 韓国	刊行者 水路部 備考	刊行年月 m34.05	所蔵者 国立国会図書館	

<그림 12> 해도번호 312

84) https://www1.kaiho.mlit.go.jp/KIKAKU/kokai/kaizuArchive/possess/pdf/kaizu_ippankaizu.pdf
(검색일: 2020.09.29),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록표(明治 初期-昭和 20년 말)인데, 본문의 <그림 12>는 旧版海図--一般海図에 <그림13>은 旧版海図-軍機海図의 목록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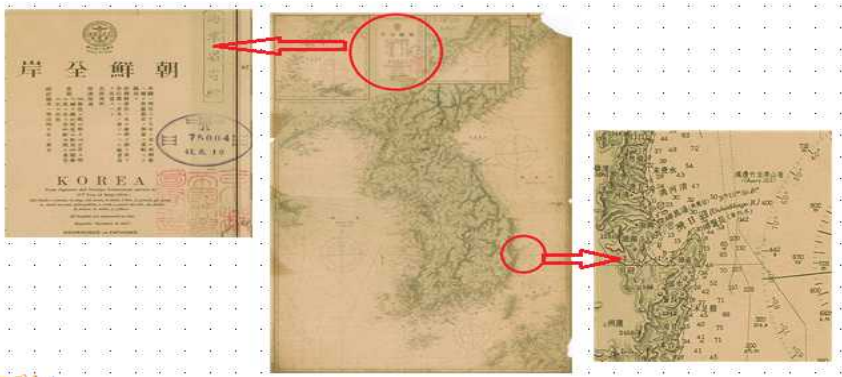
海図番号 310	馬山浦至釜山水道 (まさんうらいたる ふさんすいどう)				FLAB00015
図幅 全	縮尺 1:24,265	刊行者 水路部	刊行年月 S06.07	所蔵者 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軍機
緯度経度	35°01.2'N, 128°33.1'E / 35°13.9'N, 128°43.2'E	備考			
附帯 海図	- 国外 - 韓国				
海図番号 311	鎮海灣附近 (ちんかいわん ふきん)				FLAB00016
図幅 全	縮尺 1:48,529	刊行者 水路部	刊行年月 S07.09	所蔵者 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軍機
緯度経度	35°51.1'N, 128°22.1'E / 35°08.6'N, 128°52.8'E	備考			
附帯 海図	- 国外 - 韓国				
海図番号 312	鎮海灣 (ちんかいわん)				FLAB00017
図幅 全	縮尺 1:33,858	刊行者 水路部	刊行年月 S07.02	所蔵者 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軍機
緯度経度	35°51.0'N, 128°24.3'E / 35°09.2'N, 128°39.3'E	備考			
附帯 海図	- 国外 - 韓国				
海図番号 313	統營港至竹林浦 (とんよんこういたる ちくりんうら)				FLAB00018
図幅 全	縮尺 1:30,000	刊行者 水路部	刊行年月 S07.05	所蔵者 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軍機
緯度経度	34°40.6'N, 128°17.6'E / 34°51.7'N, 128°37.5'E	備考			
附帯 海図	- 国外 - 韓国				

<그림 13> 해도번호 312

2. 근대 일본 해군의 해도

1) 조선전안(朝鮮全岸)

해도 312호를 대신하여 해도 301호⁸⁵⁾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4> 朝鮮全岸(해도 301호)

해도 301호의 상단 중앙에는 ‘조선전안(朝鮮全岸)’이라는 해도 명칭과 바로 아래에 해도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타원형의 스탬프에는 위에

85)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명치 37년(1904)까지 측량하여 명치 39년(1906) 3월 발행하였다.

75004, 아래에 41.6.10이라는 숫자가 찍혀있다. 위의 숫자는 일련번호, 아래의 숫자는 발행일자로 생각된다. 41은 명치 41년(1908년) 즉 1908년에 간행하면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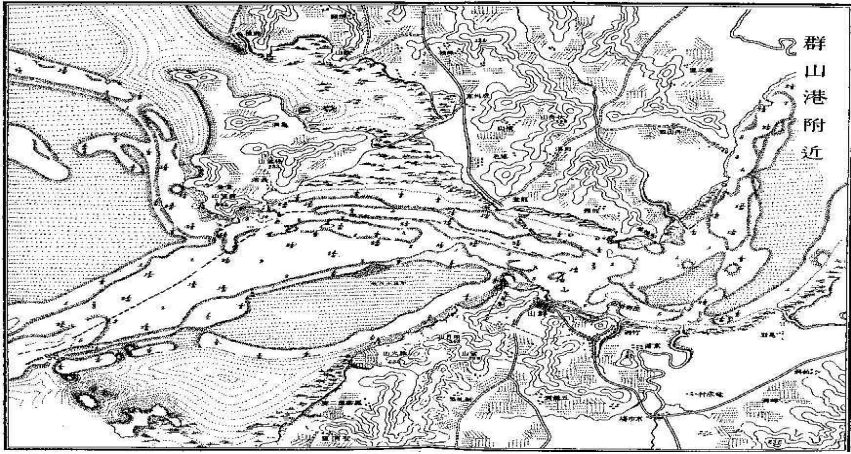
본 해도(301호)는 명치 37년(1904)에 이르러 우리(해군)의 측량에 의거하여, 영국 러시아의 최근의 측량을 참고해서 편성한다. 다만, 조선 동안은 아직 확측(確測) 중에 있으므로 명칭과 위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니, 항해자는 아무쪼록 주의해야 한다(중략)⁸⁶⁾

해도 301호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4개의 해도 중에 영일만 해도(그림 10)와 비교해 보면 두 해도의 해안부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 해군의 해도에는 보편적으로 조석(潮汐)·수심·저질(底質)·항로 등을 나타낸 기호, 숫자, 다양한 선 등의 군사적 정보가 매우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만 해도 301호의 경우는 일본 해군에서 실측 중에 있었던 점에서 동해안의 정보가 다소 미흡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두 해도의 내륙부를 비교하면 <그림 10>의 경우가 오히려 더욱 상세하다. 산의 등고선이 매우 복잡하게 그려져 있으며 곳곳에 지명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포항의 경우는 주거 지역을 마치 옥수수 형태로 반듯하게 그려 구획 정리가 잘 된 도시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포항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으며, 또한 포항 주변의 연안지역에 일본 어부의 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2) 군산항부근도(群山港及附近)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군산항부근(群山港附近)>과 일본 해군의 해도<군산항 및 부근(群山港及附近)>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86)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명치 37년(1904)까지 측량하여 명치 39년(1906) 3월 발행한 해도 301호 조선전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15> 群山港附近(『한국수산지』 3집)



<그림 16> 群山港及附近(해도 333호)

<그림 15>는 『한국수산지』 제3집에 삽입된 해도이며, 이 해도에는 ‘해도 333호에 근거(海圖 333號=據ル)’라는 표기가 있다.⁸⁷⁾ <그림 16>은 일본 해군의 해도 333호⁸⁸⁾이다. 두 해도의 제목에서도 『한국수산지』의 해도는 해군의 해도 333호를 차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해도를 비교해 보면 윤곽선에

87) 農商工部水産國(1910), 『韓國水産誌』 第3輯, 506-507쪽 사이 삽입

88)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list.php?lang=ja-JP&search=&pl2=201&p=6>
(검색일:2019.02.10.)

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한눈에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우선, 일본 해군의 해도 333호는 상단 우측에 해도의 제목, 해도의 설명 그리고 타원형의 스탬프가 찍혀있다. 이 형식은 앞에서 살펴본 해도 301호와 같다. 둘째는 해도 333호는 연안부에 영어의 알파벳과 숫자들이 뿔뿔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나침반이 2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해도에는 해도 333호에 보이는 뿔뿔한 알파벳과 숫자가 대부분 삭제되어 연안부에 빈 공백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으며, 나침반도 배치하지 않았다. 셋째는 내륙부의 경우에는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해도가 해도 333호에 비하여 등고선, 도로, 주거지역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은 검은 바둑알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군산 조계지역은 네모반듯하게 구획된 도시 모습으로 그려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해도는 일본 해군 해도의 군사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대부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미 상세하게 조사 측량한 해군의 해도 내용을 굳이 생략하고, 해안선, 갯벌, 항로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백 상태로 만들어 버린 이유는 새로운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 점은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VI. 결론

근대는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농업 중심에서 해양 중심으로 경제가 이동한 시기이다. 근대 유럽은 대항해시대를 맞이하면서 미지의 바다에 대한 항해 탐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 측량이 이루어지면서 항해에 필요한 실용적인 근대 해도가 제작되었다. 동양에서 근대 해도 제작을 시도한 국가는 일본이다. 1871년 일본 해군 수로부에 외방도(외국지도)라는 해도 제작 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측량 도구 미비와 기술력 부족으로 일본은 독자적인 실측 및 해도를 제작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의 초기 해도는 유럽 각국에서 손쉽게 입수한 해도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이 재측량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는 단계, 즉 유럽의 해도를 복제하는 수준이었다. 이렇

게 제작 간행한 해도에는 원도(原圖)의 제작 국가명, 제작 일자 등이 밝혀져 있다.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일본 해군의 해도 또한 대부분 유럽의 해도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이 다시 실측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글에서는 『한국수산지』 제2집의 기록을 통하여 경상도 동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해 연안지역에는 해도가 삽입된 곳은 4곳(죽변만, 축산포, 영일만, 울산항부근)이며 해도가 삽입된 연안 주변으로 일본 어부들의 근거지 즉 이주어촌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손꼽을 수 있는 곳은 영일만 일대이며 포항의 경우는 일본인이 많이 정주하였던 대도시였다. 현재 ‘포항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는 적산가옥, 일본인 신사 터 등 당시 일본인들의 생활 모습이 남아있어서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특히 일본 여행객들의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은 일제강점기에 오카야마를 비롯한 각 부현의 수산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이주해 온 일본인이 많았던 지역 중 한곳이다. 『한국수산지』 제2집의 기록에서는 “(1909년 현재) 포항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95호(357명)이며, 어업종사는 겨우 5호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업에 종사한다. 어업자는 오카야마현(岡山縣)의 이주민이며, 부근에는 일본 각 현의 수산조합에서 일본인의 이주지역 목적으로 선정해 놓은 토지가 많다”⁸⁹⁾고 밝혀져 있다. 당시 포항은 일본 정부가 주목했던 도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수산지』에 기록한 것은 당시 이 책의 독자층이 한국 연해로 출어하는 일본인 어부와 수산업자들이었던 점에서 일본을 떠나 낯선 이국 땅 한국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일만 일대에는 이미 정착한 일본인들이 잘 조성된 근거지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이주희망자를 기대한 편찬조사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수산지』에 삽입된 해도를 일본 해군의 해도와 비교해 보았다. 해군의 해도는 기밀이 요구되는 군사용인 반면에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는 일본 어민에게 필요한 정박지 등대 항만 암초 수심 저질 등 선박의 안전한 항로와 어획 정보와 한국 내 거류하는 일본인에게 생활의 편리함

89) 『韓國水産誌』 第2輯, 477쪽(『韓國水産誌』 第2輯의 발행일자가 1910년 5월인 점에서 포항의 인구조사는 1908년에서 190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을 제공하였다. 덧붙이면 『한국수산지』 권두에 삽입된 조선해수산조합, 일본어부들의 어획 장면, 일본 어부들의 어시장 등의 사진 또한 일본 어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자국의 어부들을 한국연해출어를 본격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전 연안에 남획으로 인한 실업어부 증가, 그리고 러시아 남하정책에 따른 침예한 국제정세 등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었다. 그러나 한국연해출어시책의 이면에서 한국연해로 출어한 일본 어부들이 자연적으로 한국의 지리를 숙지하게 되므로 해도를 작성할 때 또는 바닷길 안내자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해병으로 동원시킬 계획 등은 간과할 수 없다.

『한국수산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연안을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당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매우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한국 최초로 근대적인 동식물 분류법에 따라 수산물을 분류한 점, 해상의 기온·수온 등의 기상 및 조류(潮流) 등에 대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더욱이 근대적 정보를 전하는 사진과 해도를 삽입한 점 등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수산지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 글이 근대 경상도 동해 연안지역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한일학계 연구자들이 근대 한일수산사를 연구하는데 보다 넓은 통찰력을 갖고 조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자료〉

- 水路部(1894), 『朝鮮水路誌』
 農商工部水産國(1908), 『韓水國水産誌, 韓國沿海水産物分布圖』
 農商工部水産國(1908), 『韓國水産誌』 第1輯
 農商工部水産國(1910), 『韓國水産誌』 第2輯
 農商工部水産國(1910), 『韓國水産誌』 第3輯

〈단행본〉

- 關澤明清・竹中邦香 공저(1893),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박구병(1966), 『韓國水産業史』, 太和出版社
 小林 茂(2011), 『外邦図 帝国日本のアジア地図』, 中央公論新社
 여박동(2002),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도서출판 보고서
 김용구(2008),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농상공부 수산국, 이근우 외 2명 역(2010), 『한국수산지』 1-1, 새미
 미야자키 마사카츠 저, 이근우 역(2017), 『해도의 세계사』, 어문학사
 요시다 케이이치 저, 박호원·김수희 역(2019),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연구논문〉

- 남영우(1999),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작성과정」,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장수호(2004), 「조선왕조말기 일본인에 허용한 입어와 어업합병」, 『수산연구』 21,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정인철(2006), 「카시니 지도의 지도학적 특성과 의의」, 『대한지리학회지』 41-4, 대한지리학회.
 한철호(2015),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 [天城艦] 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 역사논총』 50호.
 김문기(2017), 「海權과 漁權: 韓淸通漁協定 논의와 어업분쟁」, 『大丘史學』 126, 대구사학회.
 松杉力修(2017), 「分縣地圖の草分け『大日本管轄分地圖』について(1)」, 『淞雲』 19, 島根大学附属図書館報.
 이근우(2011), 「『韓國水産誌』의 編纂과 그 目的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이근우(2012), 「明治時代 일본의 朝鮮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한국수산경영학회.

이근우(2019), 「근대일본의 조선 바다에 대한 서지학」, 『바다』 24-3, 한국해양학회.

서경순·이근우(2019),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矢吹哲一郎(2020), 「日本による近代海図刊行の歴史(明治5~18年)」, 『海洋情報部研究報告』, 第 58 号.

한임선(2009),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해 通漁논리와 어업침탈』, 『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경순(2021), 『메이지시대의 수산진흥정책과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편찬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세현(국제신문 2018년 12월 4일자 21면) 「해양문화의 명장면(42) 만국공법과 근대 동북아 해양분쟁」 국제신문사.

毎日申報 1912년 3월 20일자 2면 3단

〈관련 사이트〉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list.php?lang=ja-JP&search=&pl2=201&p=6>
(검색일:2019.02.10.)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dtl.php?fm=l&ghzno=KY011156>(검색일:2019.02.10.)

https://www1.kaiho.mlit.go.jp/KIKAKU/kokai/kaizuArchive/possess/pdf/kaizu_ippan_kaizu.pdf(검색일: 2020.09.29.)

<https://dl.ndl.go.jp/info:ndljp/pid/802152>(검색일:2020.09.20.)

http://nrifs.fra.affrc.go.jp/book/D_archives/2012DA103/jpegver.html(검색일:2020.09.2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A1%B0%EC%84%A0%ED%95%B4%EC%88%98%EC%82%B0%EC%A1%B0%ED%95%A9&ridx=0&to t=11211>(검색일:2022.09.24)